

# 익산시, 농업회의소 추진단 발족

### 설립 방향 결정해 내년 3월 설립... 이해관계 조정·정책 제안 등 담당하는 자치기구

익산시가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에 주력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18일 민·관·학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15개 지역(품목)농협과 16개 농업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또 희망농정위원회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 농정 거버넌스 실현을 도모한다.

추진단은 참여조직의 의견 조율과 정관·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9년 3월 농업회의소가 설립된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과 농민들을 대표



익산시는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18일 민·관·학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하는 자치 기구로 농업 분야 이해관계 조정과 정책 제안, 지역농업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형 농업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문동신 군산시장, 신년인사회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2018년 새해를 맞아 18일부터 월명동을 시작으로 "변화와 감동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읍면동 신년인사회를 시작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각 읍면동 특색에 맞춰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벤트로 시작하여 군산시장의 신년인사 및 시민과의 공감대화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해례회는 민생기사를 무리하는 진솔한 신년인사를 통해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시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여러 채널로 수렴 후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작

###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취업한 청년에 1600만원, 기업에 1인당 780만원 지원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새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정책 추진과 발맞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기업기여금(400만원)과 정부지원금(900만원)을 합쳐 1,600

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가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청년취업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요건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으로 익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서 생산현장에 직접 참여

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익산시와 협약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 및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 운영기관 : (주)에스넷 익산지점, 전주상공회의소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제이비커리어(전주), 베스트인전북지사, 군산상공회의소)

정현율 시장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왕원 기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군산시, 22일~26일 20명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1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익산시는 해마다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에서 이러한 인구변동 요인에 발맞추어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 및 정책 마련, 정부 공모사업 대응,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용역 추진 중에 인구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율 시장은 "우리 시민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담배 못 피워

### 군산시보건소, 새해 달라지는 사업들 소개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난임부부의 치료지원 확대와 치매관리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18일 군산시 보건소는 기자회견을 갖고 금연구역 확대 및 치매관리 사업 변화 등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 분야는 종전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6개월~만7세에서 6개월~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아동까지 확대된다.

노비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건강보험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 횟수를 1~2회 추가해 주며, 고위험 임신부에게는 기존 3대 고위험질환의 진료비 지원에 추가로 양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임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치매관리사업이 가장 많이 확대된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관리센터를 국가기준에 맞게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설치하여 통합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군산시 보건소는 현재 건강증진실 23층을 12억 예산을 들여 570㎡ 규모로 증축해 시설을 보강하고 치매 캠퍼 운영 및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텍사스대 주열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 원광대 ICT융합 그린에너지 연구원, 기술협력·학생연수 논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ICT융합 그린에너지 연구원은 미국 리오그라데 벨리 텍사스대학 주열 교수(사진)를 초청해 그린에너지 분야 세미나를 갖고 향후 ICT융합 기술협력 및 학생연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텍사스대학의 산학연계 교육을 사례로 소개한 주열 교수는 특성화를 위해 교육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원광대와 연구 및 학생교류를 위해 그린에너지 분야 전공 학생 5명 정도를 초청해 1년 동안 텍사스 대학에 학점교류 연수를 제안하고,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 및 산업체 교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창의공과대학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주열 교수는 멕시코 국경에 접해 있는 텍사스대학 주변 배후 도시 4곳의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멕시코 접경에 위치한 대학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주변 산업단지에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해 삼성, LG 등 한국 기업과 자동차, 전자전자, 석유산업 관련 기업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이 잘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텍사스대학 공과대학에서 추진하는 그린에너지 분야 특성화는 전기공학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영역과 컴퓨터공학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비롯해 기계공학의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분야 연구를 소개하고, 특히 텍사스 주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학

/익산=장왕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